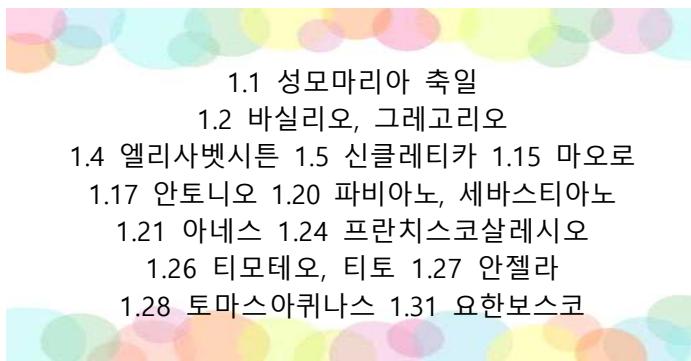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Sr.마리루시	*신청:Sr.마리루시

1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훌/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하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2026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시작

2026년 새 성경통독표를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하루 15분씩 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날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 됩니다. 와 닿는 말씀을 작은 쪽지나 공책에 써서 기억한다면 더욱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성경통독을 마치신 분은 성경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완주하신 분

김효진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이경자 율리안나

2026년 달력 배부

본당 달력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코리안 오피스에 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친교실 봉사 단체 명단(재조정)

올해 친교실 봉사 일정입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친교실 봉사 일정표	
1월	사목회
2월	요셉회, 성모회
3월	꾸리아
4월	연령회
5월	학부모회
6월	청년회
7월	선교분과(성령기도, 성소후원회, 신명)
8월	울뜨레아
9월	청년회
10월	학부모회
11월	꾸리아
12월	요셉회, 성모회

2026년 부활 세례반/견진성사반 시작

2026년 세례반/견진반을 시작합니다.

교육기간: 1) 세례반: 1/4-3/29

2) 견진준비반: 2/22-3/29

시간/장소: 1) 세례반: 3층 컨퍼런스룸, 1:00 PM~

2) 견진반: 추후 공지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비대면 『성서사십주간·신약』 수강 신청

가톨릭성서모임에서 비대면 『성서사십주간·신약』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매주 읽은 성경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생활하며, 매주 1회, 15주간 비대면으로 모여 성경 이해를 돋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주최: 미동부 가톨릭성서모임

일시: (수) 1/21~4/29 동부 오전10시.

또는 (목) 1/22~4/30 동부 저녁8시

교재/수강료: 『성경읽기안내-신약』교재 + 수강비 \$70

진도: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신청마감: 2026년 1월 11일(주일)

문의: 안 루피나 845-825-9562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림 해설



‘HIC’ 여기 | 모태에서부터 짜여진 감각이 있어, 바람의 흐름도 감지하고, 빛이 오는 곳도 알아봅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거기에는 ‘여기가 바로 거기’라는 뜻의 글자, ‘HIC’이 있습니다. 빛이 오는 곳을 따라 우리가 찾아간 곳도 거기요, 빛의 그림자를 따라 우리가 떠나온 곳도 거기임을 알고 나면, 마침내 사랑의 궤적도 그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p>옥토 한중식 전문점</p> <p>(646) 833-7864 1 E 33St. NY, 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p>	<p>WONJO K BBQ since 1993</p> <p>(212) 695-5815 23 W 32St. NY, NY10001 www.newwonjo.com</p>
<p>UDON Lab Udon & Izakaya</p> <p>(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p>	<p>더크진 The Kunjip</p> <p>(212) 564-8238 32 W 32St. NY, NY10001 www.kunjip.nyc</p>
<p>Kim & Bob Shop</p> <p>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베일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험행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p>	<p>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p> <p>120 5 WINE & WEST 8 LIQUOR 원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p>
<p>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p> <p>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p>	<p>이민/부동산 (아오스팅) 백이백 변호사</p> <p>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p>
<p>CARGOZONE LOGISTICS INC</p> <p>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p>	<p>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p> <p>크리사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p>
<p>Clear Laser CITY CLINIC</p> <p>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p> <p>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p>	<p>HAPPY HOME CARE</p> <p>이자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p> <p>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p>
<p>MIDTOWN SMILE DENTAL</p> <p>hello@midtownsmiledental.com</p> <p>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p>	<p>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p> <p>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ih@gmail.com(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p>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요약)>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이 오랜 인사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21)라는 그분의 말씀은 그저 평화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이 인사를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된 저녁부터 바로 저는 이 보편된 선포와 더불어 저의 인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곧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평화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품어 안으시는 착한 목자이신(요한 10,11,16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갈라놓는 분열의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참조). 그리스도의 현존,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승리는 인내로운 수많은 증인을 통하여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더욱 선명히 빛나게 됩니다.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부름입니다. 평화는 실재하며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평화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부드러운 힘을 가졌습니다. 평화는 폭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이깁니다. 평화는 영원의 숨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악에게는 “그만”이라고 외치지만 평화에게는 “영원히” 하고 속삭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이러한 지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빛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어둠과 공포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는 편향되고 왜곡된 관점에 휩쓸리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희망이 없고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담론들을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죄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언제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다고 느끼든, 우리 마음을 평화에 열려 있게 합시다!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또 우리의 손 닿는 곳 너머에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그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알아봅시다. 평화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이전에 실재이고 여정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선을 기억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선을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친밀한 신뢰를 나누시며 당신과 함께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곧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그들의 고통과 공포는 분명 예수님께 곧 닥칠 폭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살펴보면, 복음서들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비폭력적인 응답은 그들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였던 길입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계속해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분께서는 무력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히 되풀이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끌어라”(요한 18,11; 참조: 마태 26,52).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의 평화는 비폭력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또한 비극적인 상황에 너무나 자주 연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새로움의 예언자적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선은 무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신 이유일 것입니다. 가장 깊이 내려가 죽은 이들의 거처에까지 다다르는 그 강생의 신비는 젊은 어머니의 태종에서 시작되어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이 깨지는 가운데,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위기는 경종을 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는 절실한 바람을 느낍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흔자보다는 둘이 나오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다(코헬 4,9-10).’ 또한 ‘의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다’(잠언 18,19).” 15)

이것이 바로 희망의 희년이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희년은 수많은 사람이 순례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마음과 정신과 삶의 무장 해제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분명 이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4-5)

바티칸에서 2025년 12월 8일

레오 14세 교황